안녕하세요

발제를 맡은 컴퓨터정보공학과 김영태 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소련은 왜 성공하고 또 왜 실패했는가’ 입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가를 살펴보고 소련의 탄생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소련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까지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대국으로 불리기에 이견이 없었던 소련아 붕괴하기까지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왼쪽에 보고 계시는 사진은 니콜라이 2세 입니다. 니콜라이 2세는 300여년간 이어졌던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로서 1917년 2월에 있었던 러시아 2월 혁명으로 인해 퇴위 하게 됩니다. 1914년 7월 28일에 발발한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당시 러시아는 사회적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어린이들이 먹을 우유가 모자랄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당시 공장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는 등 민중들의 시위가 격해졌습니다.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니콜라이 2세는 군대를 보냈지만 군인들마저 노동자들의 편에 서게되고 결국 진압은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니콜라이 2세는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임시정부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1917년 11월 7일에 레닌의 지도하에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레닌이고 왼쪽 아래의 인물이 적위군을 창설한 레프 트로츠키, 그 옆에 있는 사진이 그가 창설한 적위대의 모습입니다.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는 적위군을 조직해 러시아 제국의 수도인 지금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인 페트로그라드를 장악합니다. 혁명에 반대하는 백군과 외국 열강이 볼셰비키를 공격해 러시아 내전이 일어나는데요. 백군 및 외국 열강의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 적군의 창설자였던 레프 트로츠키는 적위군을 적군으로 개편했다. 적군은 외국 열강과 백군을 상대로 승리하고 모든 반대파를 숙청하여 볼셰비키가 러시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어서 1922년 12월 30일에 열린 소비에트 대회에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자카프카스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연합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성립이 선언되었고, 이렇게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련이 탄생하게 되었지만 소련 탄생의 주역이었던 레닌은 소련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레닌은 1918년에 있었던 암살미수에 의한 후유증과 과로 그리고 여러가지 질병등이 겹치면서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레닌의 후계 자리를 두고 트로츠키와 스탈린이 격돌하게 됩니다. 당시 젊은 나이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았던 스탈린과 적위군을 창설해서 러시아 내전을 승리로 이끈 트로츠키간의 싸움은 결국 스탈린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트로츠키는 1927년 국외로 추방당하고 추후 그는 멕시코에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련이 어떻게 국력을 확장하며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련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소련의 경제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계획 경제였는데요. 1928년 스탈린에 의해 계획된 5개년 경제계획이 크게 성공하면서 소련은 큰 경제발전을 이룩합니다. 1930년대에 발생한 대공황으로 인해 자본주의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지만 당시 소련은 대공황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아주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938년에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올라서게 됩니다.

사실 소련이 처음부터 강력한 국가였던 것은 아닌데요. 1928년까지만 해도 소련의 공업 생산량은 미국의 1/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의 소련은 서구 에서 봤을 때 가난한 농업국가에 불과했는데요. 소련의 초창기에 레닌이 소련을 공업국가로 만들기 위해 신경제 정책을 펼쳐 작은 규모의 사기업과 상업을 인정하는 등의 정책들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레닌 이후 스탈린은 소련이 서방에 비해 매우 뒤쳐져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련의 모든 산업과 경제 활동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발발했을 때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가 크게 몰락을 하는 동안 소련은 대공황을 무시하고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때의 성장으로 소련은 유럽 제1의 공업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이때 스탈린의 주도로 인한 초고속 공업화는 소련을 강대한국가로 만들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인권탄압과 희생이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초고속 공업화를 위해 농민을 쥐어짜는등의 탄압이 있기도 했고 정치적으로도 대숙청을 감행하는등의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나치가 독일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1939년 8월에 소련과 독일은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을 맺고 2차세계대전 초반에는 나치 독일과 폴란드를 양분하고 핀란드를 침공하여 영토의 일부를 할양 받는 등의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다가, 1941년 6월 나치 독일은 독소불가침조약을 파기합니다. 이때 독일과 소련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 전쟁을 ‘대조국전쟁’ 이라 부릅니다. 전쟁 초반에는 소련이 독일에 밀렸으나 이후의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1945년 5월에 베를린을 함락하는데 성공합니다.

2차세계대전에서의 승리로 소련은 이전에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고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을 전부 영향권으로 집어삼킵니다. 대공황으로 인해 쓴맛을 보았던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공산주의는 매력적인 이념이었고 또 소련의 강력한 군사력은 주변국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동유럽 외에도 북한과 중국, 베트남 역시 공산주의로 갈아타는 등의 성과를 얻습니다. 이렇게 주변국들이 소련의 위성국이 되어감에 따라 소련의 힘은 매우 강해졌고 위기감을 느낀 미국과의 충돌은 냉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게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초 강대국이었던 소련의 경기는 1970년대를 들어서면서부터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소련은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었는데 70년대 들어서 부진해진 소련의 경제는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1985년에 새 서기장으로 임명된 미하일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는 침체된 소비에트연방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는 1985년부터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즉 개혁과 개방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사우디와 미영간의 치킨게임으로 석유값이 폭락하여 세수가 크게 줄어버린데다가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가 터지면서 결국 소련의 경제는 회생 불가까지 가버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는 소련 체제 하의 온갖 비리와 범죄를 드러내어 소련 공산당과 소련 체제의 정당성에 흠집을 냈다. 한번 시장의 고삐가 풀리자 인플레이션을 막아낼 방법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의 혁신 정책은 원래의 의도는 거의 이루지 못한 채 소련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붕괴를 초래했고, 억눌려 있던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만들었다. 이로인해 1986년 12월 라트비아에서 처음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며 소비에트 연방에서의 탈퇴와 민족국가로써의 자주독립을 요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환원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고르바초프의 정책 실패는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듭니다. 동유럽 혁명이 발발해서 폴란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마저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후 1991년 8월 고르바초프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쿠데타 지도자들은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공화국과 시민들은 민간 저항을 시작하고 모스크바에서는 전역이 형성되었다. 러시아 SFSR 대통령의 보리스 옐친은 쿠데타를 비난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수천명의 모스크바 시민들이 러시아 주권의 상징적 장소인 러시아 연방 의회와 보리스 옐친의 사무실인 모스크바 백악관에 몰려들었다. 쿠데타 지도자들은 옐친을 체포하는 데 실패하며, 반격을 받게 되었다. 쿠데타 지도자들이 보낸 특수부대들은 관저 근처에 접근하지만, 바리케이드를 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쿠데타는 실패하고 쿠데타 도자들이 구금되고, 바초프는 서기장에 복귀되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능력은 완전히 상실되었으며 연방이나 러시아도 중앙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8월과 12월 사이, 무려 10개의 공화국들은 쿠데타의 공포로 독립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크렘린을 포함하여 소련 정부가 남긴 것을 물려받기 시작했다. 1991년 12월 1일 열린 우크라이나 독립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90%가 독립을 선택하며 우크라이나가 독립했다. 같은년도 12월 25일 아침, 고르바초프는 소련 서기장의 사임을 발표하고 연방 해체를 발표하면서 옐친에게 모든 권한을 인계했다. 이 다음날 소비에트 최고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해산시킵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주름잡던 강대국, 소련은 해체되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초 강대국으로 성장했던 소련이 붕괴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경제를 말할 수밖에 없다. 당시 소련은 다른 서구 국가들의 시장 경제 체제와 다른 중앙 계획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체제 아래에선 국가가 모든 생산품(자동차와 신발, 빵 등)의 생산량을 정했다. 또한 시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물건이 몇 개인지, 물건의 가격은 얼마인지, 임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도 결정했다. 당시에는 이론상으로는 효율적이고 공정해 보였으나, 실제로는 다연하게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 경제체제 아래에서는요 공급은 항상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화폐는 종종 의미를 상실했다. 많은 소련 주민들이 극빈 상태는 아니었지만, 기초 생필품이 충분치 않아서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없었다. 이후 고르바초프가 새로운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소련 경제는 속도감 있는 개혁을 시행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였고 결국 이런 실패는 정부에 대한 좌절감만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데올로기 였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을 시행했다. 수십 년간 억압적인 정권하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질문하고 불평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더욱 큰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개방은 소련이라는 국가의 사고 체계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소련 주민들에게 공산당 통치 체제가 비효율적이고 억압적이며 부패에 취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수십년 동안 소련 주민들은 서방이 부패했고, 자본주의 정부하에서 국민들이 가난과 타락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이전과 다르게 더 자유로워진 국민들은 다른 국가의 생활 수준과 개인의 자유, 복지가 소련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련의 국민들은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이후 소련의 붕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련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쇠퇴와 붕괴과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제 12강. 소련은 왜 성공하고 또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주제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